



모란이 피기까지는,

봄, 소망, 희망

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. **도치법**

여성적 어조

⇒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

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,

절망감의 표현

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.

모란이 떨어진 슬픔

오월 어느 날, 그 하루 무덤던 날,

봄의 막바지, 봄의 상실

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

의인법

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,

소망

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,

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,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,

↗ 늘, 한결같이

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.

서러운 정감의 깊이

⇒ 모란을 잃은 설움

모란이 피기까지는,

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, 찬란한 슬픔의 봄을. **도치, 역설(모순형용), 관념의 시각화, 수미상관**

⇒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림

작 가 : 김영랑 -시문학 동인, 순수시를 많이 씀, 언어의 조탁(언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갈고닦음)

성 격 : 유미적, 낭만적, 상징적, 여성적

제 재 : 모란의 개화와 낙화

주 제 : 모란에 대한 기다림.

특 징 : ①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의 사용(언어의 조탁)

② 수미상관, 역설법의 사용

해 설

이 시는 화자의 소망을 모란이라는 소재에 빗대어 표현한 시이다. 이 시에서 봄은 화자가 절실하게 소망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뜻한다.

모란이 피기까지 봄을 기다리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며 살다가, 모란이 지고 나면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고 만다. 그러나 이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시 봄을 기다린다. 이런 것이 인간의 운명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를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 인간사의 슬픔을 느끼게 하는 시이다.

